

# ‘압승’ 與 정국 주도... ‘참패’ 野 내분일 듯

## 향후 정국 전망은

7·30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은 여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 재보선 이후엔 2016년 4월 총선까지 1년 8개월 동안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만들어진 여권의 우월적 구도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게는 가까운 시일 안에 만회할 기회를 갖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잇단 공직후보자 낙마사태 등으로 소실한 국정운영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국가 개조 드라이브를 걸 계획을 갖게 됐다. 이번 선거가 박근혜정부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더욱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욱이 의석 수도 147석에서 158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원내 과반을 확보, 국회 운영에서도 든든한 지지대를 되찾게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국을 주도할 힘을 갖게 됐다. 그동안 세월호 정국에서 야당에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여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한 ‘국가 대개조’ 관련법,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지난 14일 정당대회에서 새로 들어선 ‘김무성 대표 체제’는 재보선 승리를 바탕으로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도 관계에서까지 힘을 갖고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 주류 측의 견제에서 일단 벗어나 연합축할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등 여러 여건상 애초 필패의 예상을 깨고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로 평가를

## 새누리 의석 과반수 확보... 김무성 체제 가속도

### 새정치 밀실공천·단일화 불협화음 후폭풍 예고

### 김·안 리더십 대타격... 조기전당대회 열릴 수도

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사상 최악의 패배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당내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을 비롯해 주요 접전지의 ‘돌리막기’식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간 이해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만큼 당권경쟁이 조기에 불붙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친노(친노무현) 등 구주류를 중심으로 ‘조기전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앞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방선거의 사실상 패배에 이어 ‘미니총선’이라 불린 재보선에서 패배하면서 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 패배는 단순히 ‘11대 4’의 수치적 의미를 떠나 뒷받침인 순천·곡성에서의 패배와 광주 광산의 저조한 투표율과 득표율, 다른 전남지역 선거구에서의 여당 후보의 선전 등은 새정치연합의 존재 근거를 위협할 정도의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이다.

더욱이 당내 잠재적 대권후보까지 모두 투입한 선거에서 당 지도부의 공천 잘못과 전략 부재 등으로 참패함으로써 향후 대선 전망까지 어둡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안 야당으로서 입지가 흔들리게 됨에 따라 당을 통째로 바꾸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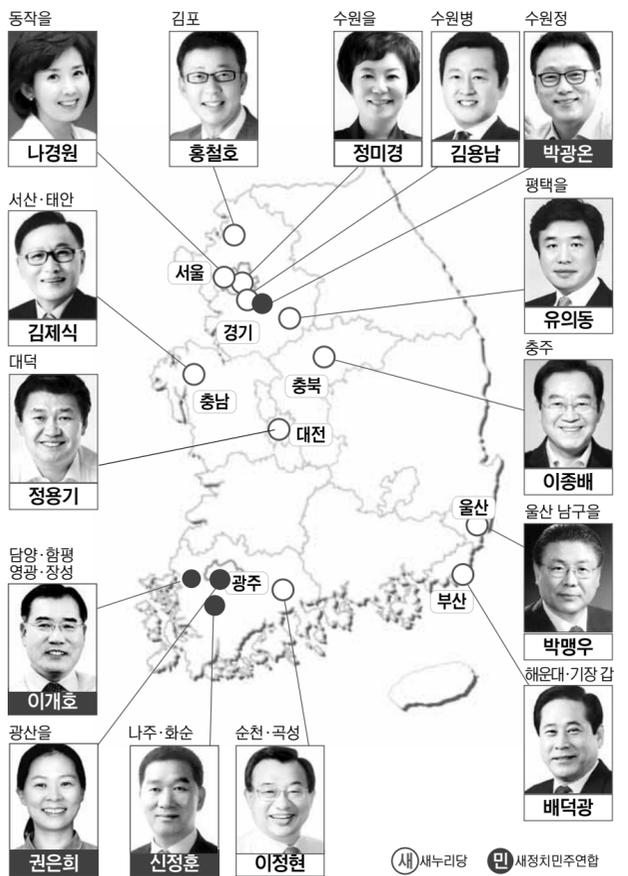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웃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동작을 나경원 후보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달받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7·30 재보선 당선자



## 새정치, 예상치 못한 결과에 ‘패닉’

### 순천·곡성까지 패배 허탈

### 새누리는 잔칫집 분위기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선에서 기대했던 ‘5+α’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 ‘11대 4’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각각 의원회관과 국회 밖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가운데 주승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 10여 명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TV를 설치하고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패배를 예상한 듯한 어두운 분위기는 개표 시작 전 최종 투표율이 기대와 달리 30% 초반에 그쳤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부터 드러났다.

개표 초반 가장 먼저 집계가 시작된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이개호 후보가 앞서나갈 때도 예상했다는 듯 고개만 끄덕일 뿐 누구도 반기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새정치연합 서

갑원 후보간 대결로 주목을 모은 순천·곡성에서는 개표 초반 70%대 득표율로 이정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허탈한 웃음이 흘러나오기까지 했다. 서갑원 후보의 연고지인 순천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가 리드하는 것으로 나오자 충격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순천·곡성 지역의 패배가 확정되던 순간에 대표실을 지키던 사람은 당직자 두 명뿐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상 밖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여의도 당사 2층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은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후 11시 20분께 재보선 지역 15곳 가운데 11곳에서 사실상의 ‘승리’를 확인하며 잔칫집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경원 후보와 이정한 후보의 당선 확정 소식이 들려오자 지도부는 기립박수로 자축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후보의 승리를 확인하고서야 상황실 벽면에 붙은 후보들의 사진에 하나하나 ‘당선 마크’를 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권 잠룡’ 손학규·김두관·임태희 줄줄이 고배

### 정치 거물들 운명은

### 나경원 화려한 복귀

7·30 재보선은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는 악몽의 선거가 됐다. 30일 밤 야당의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 여권의 대선주자인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이 특정 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역구의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수원 속의 영남’이라 불

리는 팔달구에 출마해 ‘분당 재보선 승리’의 재현을 노렸지만 분루를 삼켰다. 공천잡음과 휴가철에 따른 투표율 저조가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손 전 대표는 대선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압중모색의 시간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전 지사도 재기에 실패했다. 경남지사 직을 중간에 접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연이은 실패로 야당 내에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가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두 후보에게 이번 선거 결과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향후 정치 향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둘 모두 야당에 극히 불리한 지역구에서 당한 패배여서 독배를 마신 상황이 됐다.

또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번 재보선 공천과 본선 과정에서 두 후보는 물론 전정배·정동영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안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철저히 제거한 것이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임태희 전 실장의 패배도 본인에게는 뼈 아프다. 경기 평택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접고 당 지도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원 영통구에 출마했으나 야당 성향 지역구의 벽은 높았다. 조심스럽게 대권을 준비해온 임 전 실장에게는 당분간 관망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새누리당의 거물급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만이 승리에 화려하게 여의도 정치권으로 복귀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 하나로대출

↑ 한도는 높게  
**Up&Down**  
↓ 금리는 낮게

- 집 담보도
- 상가 담보도
- 전세보증금 담보도
-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1. 필사본
2.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3.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4. 불법 복제를 금함

##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지 후근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